

수급변화에 따른 종목별 위험 점검

이선엽 (02) 3772-2559
coreagod@good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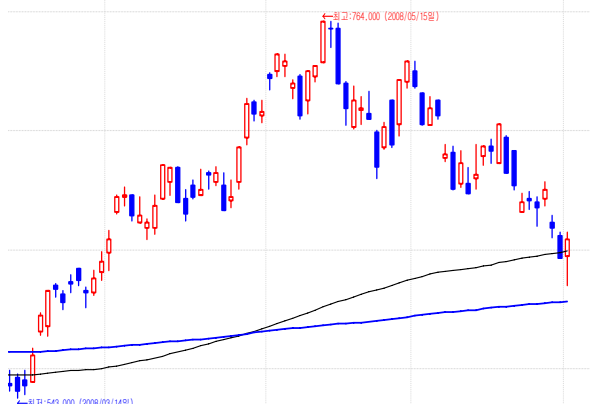
기रो에 선 주요 종목 동향

글로벌증시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신용위기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악재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장세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국인은 17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장세를 보는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임을 드러냈다. KOSPI지수가 1,70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매물 규모가 줄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및 경기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되면 언제든지 매도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위안거리는 되지 못할 전망이다.

전일 지수가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으로 인한 낙폭만회라는 점에서 상황에 대한 변화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늘어난 매수차익잔고 규모가 1조원 이상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은 장세에 약이 될 수도,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장세가 긍정적일 경우 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일 경우 외국인 매도와 맞물려 매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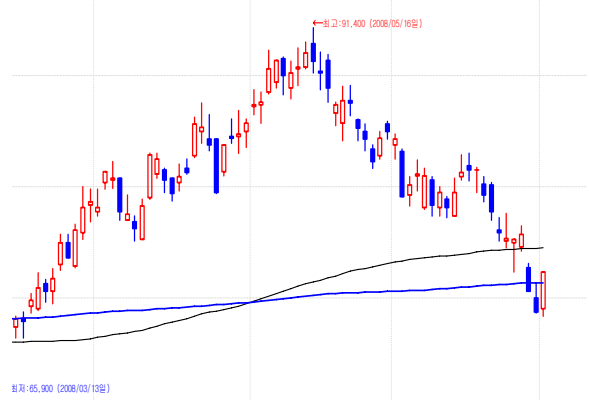
최근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의 주가가 경기선으로 불리는 120일 이동평균선(혹은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려나면서 추세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의 종목은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거나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목별로 주요 지지선인 경기선을 이탈할 경우 조정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이동평균선은 이들 종목의 주도주 부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장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 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감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들 종목의 향후 움직임은 불리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수의 향후 방향성을 타진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전망이다.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되고 있는 삼성전자



자료: 굿모닝신한증권

12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에 위치한 현대차 주가



수급여건 악화에 따른 종목별 위험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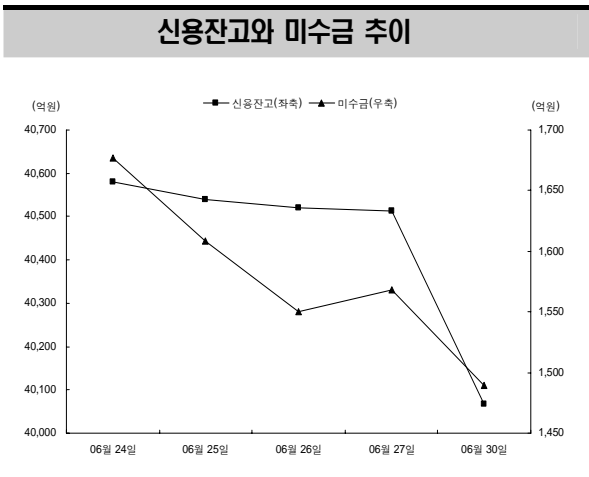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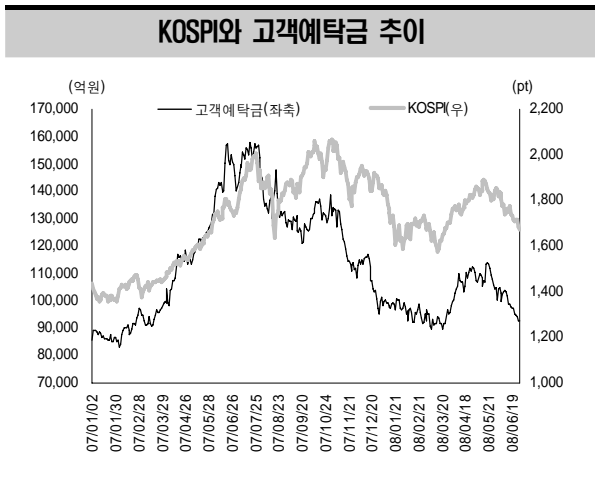
해외변수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표되는 국내 경기지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5.5%를 넘어섰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가격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 상승과 소비위축 등 해외변수의 부정적인 여파가 국내경기에 파급되면서 지수를 짓누르는 양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수급여건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변화의 조짐이라고 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중심의 근본적인 수급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투자자의 수급여건이 변화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최근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프로그램과 더불어 매수에 나서면서 외국인의 매물을 소화하였다. 그런데 6월 25일 이후 매수세가 급격하게 줄어들더니 급기야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3,930억원의 주식을 팔아 치웠다. KOSPI 지수가 1,700선 아래로 떨어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법한데, 되려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가 매도로 돌아선 이유는 분명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을 수도 있고, 향후 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매도에 나섰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추정은 고객예탁금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고객 예탁금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면서 장세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객 예탁금 감소와 더불어 신용잔고와 미수금 감소 추이 역시 개인투자자의 수급을 대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미수금과 신용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신용으로 매수했던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지수가 상승세로 반전하지 못할 경우 신용으로 매수한 종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증거금이 부족한 만큼 자금을 채우거나 해당 종목을 처분해야 한다. 이럴 경우 관련 종목은 매물압박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가의 하락은 재차 증거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잔고가 많은 종목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과 외국인 보유가 많은 종목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로스컷(손절매)에 따른 주가하락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종목의 추세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추세가 무너진 종목을 매수할 때에는 이전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굿모닝신한증권